

한국 미학의 큰별 우현 고유섭의 혜안



구수한 큰맛
고유섭 지음 | 진홍섭 엮음
다할미디어 | 1만5천원

생전에 "나의 오직 하나의 소원은 한국미술사의 완성"이라 했던 한국미술사학의 거부 우현 고유섭(1905~1944). 개성박물관 관사의 단칸방에서 39세로 요절하기까지 우현은 한국미술사 저술이란 '독립운동'에 몰바쳤다.

올해는 고유섭 선생 탄생 1백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와 관련된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예전에 펴낸 조선미술사 연구가 최근

성급에 떨어지기 쉬운 장비요, 신라는 재주없는 관우인 양하다."는 식이다. 외당 무늬로 본 삼국의 특색에선 "고구려에서는 고딕적 요소를, 백제에서는 낭만적인 트집을, 신라에서는 클래식한 것을 본다"고 전한다.

우현은 일제시대에 미학과 미술사를 국내에선 처음으로 전공하고 이를 뿌리내리게 한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미의 특징을 '무기교의 기교' '비정제성' '민예적인 것' '구수한 큰맛' 등으로 압축해 표현하기도 했다.

조선미술에 있어서 구수한 큰맛이란 어떤 걸까? 우현은 순박순후한 데서 오는 맛이요, 그것은 깊이에 있어 입체적으로 쌓여 있는 것이며, 속도에 있어선 완만한 데서 오는 맛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우현은 조선미술에서 늘 한 개의 모순을 본다고 말했다. 그것은 작은 맛과 큰맛이다. 조선미술의 단아함은 작은 데서 오는 예술성이다. 그러나 다시 큰맛이 있다. 큰맛은 단아치 않은 것이다.

이 모순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현은 단아한 작은 맛이란 외부적, 자연적, 지리적 환경의 소치로 보고 있다. 단아란 자연의 제약에서 오는 면이요, 큰맛이란 생활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무관심, 체념 등에서 거칠고 큰 것이 나오고 부정이 나온다는 논리다.

구수한 큰맛의 유별난 예로 우현은 '성덕대왕신종'을 들고 있다. 그 종의 문양은 8능의 굴절마다 8편의 연화 매듭을 이루고, 정상의 흰찬 용 조각은 종을 칠 때마다 중생심의 이무기가 용이 돼 승천하는 경지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는 "실로 구수하게 크다"라고 성덕대왕신종을 평가하고 있다.

우현이 한국미술사를 연구하면서 가장 감탄해 했던 것중의 하나가 바로 석굴암이다. 석굴암에는 매우 절



우현은 보는 이의 위치에 따라 후광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배치한 석굴암의 설계를 한국 미술사에서 가장 높이 평가한다.

묘하게 배치된 연화문이 두 개 있다. 본존불 뒤쪽 벽과, 석굴 천장의 연화문이 그것. 본존불 뒤쪽 벽의 연화문은 후광인데 그것은 감상하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후광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배치한 것이다.

우현의 석굴암에 대한 극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이 책에서 "급기가 원상 앞에 다다라, 부처의 얼굴을 우러러 볼 때 후광이 어느덧 정상의 연화로 변하도록 설계돼 있으니, 이것이 천장 중앙에 남아 있는 한송이 연화의 존재 이유이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또 "이것이 바로 석굴암의 생동적 기운이요, 실로 경탄할 만한 신의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을 다 읽고나면 우리미술사학의 황무지나 다름없던 1930년대 우리 미술을 이렇게 날카롭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했을까 하는 생각에 숙연해 지기까지 한다.

아마도 이런 훌륭한 스승이 있었기에 이 책을 엮은 진홍섭 씨를 비롯해 황수영(前 동국대 총장)과 최순우(前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등 한국미술사학계의 거목들이 배출될 수 있었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 jim@buddhapia.com

조선미술에서 늘 한 개의 모순을 본다. 그것은 작은 맛과 큰맛이다. 조선미술의 단아함은 작은 데서 오는 예술성이다. 그러나 다시 큰맛이 있다. 단아한 작은 맛이란 외부적, 자연적, 지리적 환경의 소치다. 단아란 자연의 제약에서 오는 면이요, 큰맛이란 생활의 태도에서 나온다.



1941년 석굴암에서 지인들과 찍은 필자의 모습(왼쪽에서 첫 번째).

그의 제자 진홍섭 前 이화여대 교수에 의해 손질돼 출간됐다. 제목은 <구수한 큰맛>이다.

이 책은 우현이 생전에 한국 미술에 관해 쓴 24편의 주옥같은 글을 골라 엮은 것이다. 생전에 난해한 한문투로 발표돼 이해하기 어려웠던 한국미술사에 관한 글을 쉬운 한글로 풀어 주고, 발표 당시인 1930년대의 시대적 배경과 출처, 어려운 한문 원전의 해석, 전문용어 해설 등을 통해 한국미술사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해 놓았다.

특히 이 책은 당시에 처했던 현실과 한국미술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찾아내 정곡을 찌르는 우현의 분석이 돋보인다. 가령 삼국의 고분을 비교 평가할 때 "백제는 자칫하면 영리에 떨어지기 쉬운 조자룡이요, 고구려는



서른살 경제학
(30대를 위한 생존 경제학 강의)
유병률 지음
인물과사상사 펴냄 | 1만2천원

이 책은 경제학의 기본원리를 실제 경제현장의 사례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설명했다. 탄력성 개념을 매스터리 (감성적 중저가 명품 소비 경향)와 매트르 (색수업 (도시형 남성) 을 이용해 풀이하고, 합인점의 가격과피에 숨어 있는 마케팅 전략을 게임이론으로 설명한다.

급리와 유가, 환율, 대기업의 구조, 영업, 순환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지은이는 알기 쉽게 '사고' 하는 방법을 독자들에게 주입시키며, 이것이야말로 잘 먹고 살아가는 삶의 지름길로 들어가는 그 시작의 단계라고 말한다.

이 책의 가치가 매겨지는 중요한 순간이다. 모든 학문의 기초가 '사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자들은 경제학을 '사고' 과정을 생략한 실천 응용 분야에 집중시켜 현실의 빠른 이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보통의 월급으로 생활하는 미혼 남녀들은 넉넉한 용돈을 쓰지 못하면서도 노후는커녕, 결혼자금만 만족스럽게 준비하지 못해 경제 생활의 악전고투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무리한 과다지출로 인한 카드사용 등으로 분의 아니게(?) 생활고에 찌든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또한 빈번하다. 그

경제 읽는 눈, 뜨셨습니까?

랄다면, 동일한 월급에 동일한 연령에 비슷한 가정환경에 보다 빨리 경제적인 목표를 이뤄나가는 이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사실 해답은 간단하다. 경제를 읽는 눈을 갖는 것이다. 경제라고 생각하면 머리 아픈 과제라고 발을 빼는 이들이 많지만,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흥미로운 분야가 경제라는 사실을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발견 할 수 있다.

'경제를 읽는다'는 말은 은행과 투신, 증권을 오가는 경제 흐름과 급리, 환율로 반영되는 시장 동향, 이에 따라 움직이는 각종 다양한 경제 상품들의 변화 등을 파악해 내는 센스라는 말로 재해석 될 수 있다.

지은이가 연령대 별로 예상하는 노후 생계비는 누군가는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미래에 대한 공포감을 동반한다. 그건 바로 이 책이 갖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에서 출발하는 경제를 왜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낼 줄 알아야 하는가 그에 대한 이유와 동반되는 해답을 지은이는 일목요연하게 지금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재빠르게 짚어 나간다.

현재 이미 1000포인트를 넘어선 국내 증시의 기관 투자자들의 매일 금액 상당 부분이 적립식 펀드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펀드를 가입한 가입자들은 현재 증시 활황을 맞이하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 역시 다가올 시장을 읽어 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만이 획득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다. 지은이는 무턱대고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때를 이루고 있는 경제원리부터 시작하려고 이이거 한다.

홍석민(대전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소원성취 기도도량

봉화 약수암

봉화에 위치한 약수암은 부처님의 가피와, 산신각의 산신 할아버지의 영험함, 그리고 경내 석간수로 흐르는 약수의 치유력으로 고통받아 오던 신도들이 건강을 되찾고, 소원하던 바를 이루어 가며 점차 기도도량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난치병으로 죽음을 기다리던 김순보 보살님,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지병으로 삶을 포기했던 박정희 보살님.... 약수암 부처님께 의지해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한 결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도님들 또한 약수암의 기도로 원하는 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삶의 끝에서 서 있다고 절망하는 신도님들께 마음과 질병의 치유를 할 수 있는 약수암을 알려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돈보다 지극한 정성의 마음이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2리 약수암
(분천역 바로 뒤 / 영주에서 봉화를 거쳐 현동, 울진방향)
054)672-7932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불 전 함

가게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시원기전 북 043-647-2378, 011-467-1472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와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합병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나,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똥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기처럼 속면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로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몸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 (팔보호소)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지붕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테이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모공사)

서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0-9697-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